

동물원 폐지를 해야 하는가?

학번: 202210141

이름: 이찬희

1. 서론

동물원은 각각 다른 동물을 한곳에 모아 구경하는 장소이다. 그런데 동물원을 관리하는 사육사는 동물들을 배려하고 동물들을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궁금해한다. 또한 동물학대로 인한 피해로 동물원 폐지를 찬성하는 사람들과 동물원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이 갈등이 생긴다. 이 글은 동물원 폐지에 찬성과 반대에 논쟁을 다루어 볼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보자.

2. 본문

2-1 동물원 폐지에 대해 반대해야 한다. 그 근거로는 동물들은 동물원에서 보호를 받고 있고, 동물들은 자연으로 돌아간다 해도 지구온난화로 인해 야생 활동이 더욱 힘들다. 대표적인 동물은 북극곰이다. 그 이유는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를 직격탄으로 맞는 대표적인 동물은 북극곰이다. 북극곰은 기후 변화로 삶의 터전을 잃고 있다. 해빙 면적이 매우 빠르게 줄어드는 것을 위성 사진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도 있지만,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북극곰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 이 사실은 지난 20년간 노르웨이군도 스발바르 지역 북극곰 개체군 6백여 마리의 조직 세포를 검사한 연구를 통해 알려졌다. 노르웨이 생물경제연구소는 9월 8일 영국왕립학회B에 발표한 논문에서 얼음이 급격한 속도로 녹으면서 북극곰의 서식지가 파편화되었고, 외부 북극곰과의 접촉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북극곰은 이동 속도가 빨라 서로 다른 계통의 북극곰과 짝짓기를 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해빙이 녹아 이동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북극곰은 집단 내 동계 교배를 하게 되며, 이는 유전적 다양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¹⁾ 이렇게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로 동물원에 있는 동물이 다시 야생으로 돌아가도 동물들은 환경에 적응을 못하고 짝짓기도 못하는 현상이 생긴다. 그러므로 동물들은 동물원으로 다시 돌아온다.

또한 동물원에는 일반 동물들 뿐만 아니라 멸종위기 동물들도 보호를 받고 있다. 하지만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는 동물원이 사라진다면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은 죽이는 것과 다름이 없다. 보호받으며 살아온 동물들은 대부분 야생성을 상실했다. 이러한 동물들은 밖으로 내보낸다면 적응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이미 인간에 의해 터전을 잃어버려 더 이상 보금자리로 만들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프랑스 리옹 동물원에는 보유하고 있는 동물의 50% 이상이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받고 있다²⁾ 이렇게 멸종위기 동물들이 야생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동물들은 야생에서 적응을 못하고 스스로 동물원으로 돌아와서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근거는 동물원은 교육의 용도로써 존재가치가 높다. 동물원은 아이들의 창의력을 높이고 사고력을 증진할 수 있다. 동물원이 아니면 살아있는 동물을 눈으로 직접 보거나, 교감할 기회는 사실상 없다. 동물원이 멸종위기종을 보호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동물들을 TV나 책을 통해서만 접하게 될 것이다. 아이들은 동물원을 통해 해외 여러 나라의 동물을 한 곳에서 볼 수 있으며, 새로운 생명을 보면서 그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식견을 넓힐 수 있다. 그것은 분명 백문이 불여

1) 정유희, 이명현, 「위기에 처한 북극곰, 문제는 서식지 감소뿐만이 아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21년 10월 11일.

2) 송기은, 「【송기은의 시사칼럼】 동물원 폐지해야 하는가」, 「경청칼럼」, 2021.11.10.

일견이라 하듯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백 번 듣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낼 것이다.³⁾ 이렇게 동물원 폐지가 되면 동물들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동물원은 과학적 연구의 기능이다. 동물원은 실제 야생의 서식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야생동물에 습성 및 생태에 관한 연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다. 또한 그러한 연구결과의 축적은 야생동물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동물을 이용한 연구가 기본적으로 인간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때로는 야생동물에 대한 인간의 이해와 능력을 개선시켜 동물에게 이로움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동물 이용 연구는 동물원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⁴⁾ 동물원에서 동물들의 환경과 습관을 관찰하거나 연구하는데 적합한 장소이다. 동물들은 동물원에 있으면 인간과 친근감을 느끼고 함께 살아갈 수 있다.

3. 반론

동물원 폐지에 대해 찬성한다. 그 근거로는 동물원 내 동물 쇼를 금지 시키고 동물원 시설을 개선을 해야 한다. 그 이유는 먼저 동물 내 동물 쇼는 동물이 강제로 인간으로 인해 공연역지로 하거나 공연을 준비를 하는데 동물 학대가 일어날 수 있다. 동물들은 매일 우리에게 가둬 있어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것이다. 그 근거로는 세계동물원수족관협회(WAZA) 등 동물보호단체들은 고래류와 함께 북극곰, 코끼리, 영장류를 전시 부적합 종으로 꼽는다. 사육장 면적이 야생에 비해 비좁은 건 공통된 문제. 북극곰에겐 극심한 기온 차, 코끼리에겐 딱딱한 동물원 바닥, 지능이 높은 영장류에겐 사람들의 시선이 문제다. 또한 관람객의 부주의한 행동도 동물을 괴롭힌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동물원의 조사에 따르면 동물원의 평균 소음은 70dB(데시벨)로 나타났다. 가장 시끄럽다는 열대우림의 소음은 40~60dB, 사바나 기후는 20~36dB에 불과하다. 바스락거리는 벌레 소리, 바람소리 정도가 본래 그들의 소음원이었다. 이처럼 낮은 환경에 노출된 동물은 혈압과 심박수가 높아지고, 장기적으로 번식 능력과 사회 활동도 영향을 받는다. 이른바 '관람객 효과'다. 물범, 타마린, 유인원 등이 관람객에 취약한 대표 동물이다. 관람객이 많은 날 고릴라의 공격 행동은 평소보다 약 1.4배 늘어나고, 물범은 물속에 깊이 잠수한 채 지내는 시간이 길어진다. 몸집이 작은 유인원은 사람을 잠재적 포식자로 인식해 더 예민해진다.⁵⁾ 이렇게 동물원은 인간들을 시선과 공연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압박과 동물들이 맞는 환경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동물원 관계자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동물원 운영을 해야 한다고 본다.

3-1 재반론

동물원 환경시설과 사람들 시선들로인 동물들 스트레스 피해가 생기는 것은 맞다. 그렇다고 동물들을 다시 야생으로 돌아간다면 인간들은 동물들한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대한민국은 전반적으로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형이다. 그래서 초식동물이 도로에 뛰어들면 동물 사망과 교통이 혼란스럽다. 그리고 초식동물뿐만 아니라 육식동물이 야생으로 나온다면 인간들은 생활을 못할 것이다. 그리고 바다에 사는 동물이 야생으로 돌아가면 물 온도가 적응이 안 되어서 더 빨리 죽을 것이다. 그리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더욱 많다. 그 근거로는 야생동물

3) 백서희, 김은솔, 『동물원을 폐지 해야 하는가? yes or no』, 『전주대신문』, 2022년 10월 28일.

4) 이지원, 『동물원 교육 사례 분석과 면담 조사를 통한 동물원 교육의 환경교육적 방향성 탐색』, 『청주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20 pp. 17~18.

5) 신수빈, 권예슬, 「죽음으로 불행을 말하는 동물원 동물들」, 『동아사이언스』, 2017.04.28

에 의한 경제적인 총 피해액은 2003년 1천 155억 원, 2004년 735억 원, 2005년 772억 원, 2006년 755억 원, 2007년 613억 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06년 6월 환경부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발생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은 2002년 120억 원, 2003년 180억 원, 2004년 206억 원, 2005년 211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접수되지 않은 피해까지 감안한다면 그 피해는 연간 약 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까지 추정되고 있다(농민신문, 2007년 6월 18일자). 특히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주로 산간 지역 농경지, 소규모 영세농 등에 집중되어 있고, 피해 예방 시설 미설치 지역, 총기 사용이 불가능한 군사보호지역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다.⁶⁾ 이렇게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로 복원하는 비용이 많다. 그런데 복원 비용 누가 해결하나? 그건 인간이다. 그러므로 동물은 동물원으로 보호를 받고 환경과 동물들에 대한 배려를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러면 동물원 폐지를 막을 수 있다.

4. 결론

필자는 동물원 폐지에 대해 찬성과 반대에 대해 조사를 해봤는데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알아본 결과 찬성입장은 동물 쇼와 동물원 시설 문제 그리고 인간들의 시선에 의한 스트레스로 인해 동물원 폐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그런데 반대 입장은 지구온난화, 멸종동물, 과학적 연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로 방지하기 위해 동물원 폐지를 반대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물원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를 해야한다. 그 이유는 찬성입장에서 동물쇼를 하지 말아야 하는 주장은 동물원에서도 어느 정도 감안하고 중단해야 하는 것이 맞다. 동물 쇼로 인한 동물 학대가 생기면 더욱 큰 논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동물원 시설은 정부에서 동물원 시절에 대해 복지를 해주면 동물들이 생활하기 좋은 온도와 바닥을 형성해주고 인간들의 시선이 불편하면 보호 유리로 설치를 하면 된다. 그리고 동물들은 인간처럼 적응의 동물이라 동물원 환경에 적응해서 사육사들이 주는 먹이와 환경시설도 잘 관리를 해준다면 동물과 인간이 배려하며 공존하며 생활한다. 그러므로 동물원 폐지에 대해 반대한다.

5. 참고문헌

정유희 이명현, 「위기에 처한 북극곰, 문제는 서식지 감소뿐만이 아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21년 10월 11일.

송기은, 「【송기은의 시사칼럼】 동물원 폐지해야 하는가」, 경청칼럼, 2021.11.10.

백서희, 김은솔, 『동물원을 폐지 해야 하는가? yes or no』, 「전주 대신문」, 2022년 10월 28일.

이지원, 『동물원 교육 사례 분석과 면담 조사를 통한 동물원 교육의 환경교육적 방향성 탐색』, 『청주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20 pp. 17~18.

신수빈, 권예슬, 「죽음으로 불행을 말하는 동물원 동물들」, 「동아사이언스」, 2017.04.28.

박덕병, 이민수, 채종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사례」, 「한국농촌지도학회」, 2008.03, pp 115~116.

6) 박덕병, 이민수, 채종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사례」, 「한국농촌지도학회」, 2008.03, pp 115~116.